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70:1-5)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의 도움이 올지, 아니면 나중에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높이는 하나님이 도울 의지가 있으신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다 보면 사실상 반복되는 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53편에서 반복되고, 본 시는 시편 40:13-17절의 반복입니다.

시편 70편이 시편 40편에서 독립된 것이라면 그 의도는 시인의 상태가 긴급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 시인의 긴급한 상태

시인은 심각한 고통에 빠져 하나님께서 낮기 전에 속히 자신을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아하 아하’ 하면서 조롱할 뿐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 찾고 있다고 했지만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피신하였고 후일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윗이 어떤 처지에서 본 시를 기록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40년간 힘 있게 다스린 이스라엘의 사랑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복을 받았으며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삼상 13:14).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거의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고난과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에 처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1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5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5절속에서 4번이나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속히 건짐을 받지 못하면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2. 시인의 기도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고 말씀합니다.

본 편은 철저한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다음의 3가지로 기도합니다.

① 속히 구하소서(1절) : 자신을 위하여

다윗은 기도의 순서에 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속히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식도 형식도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속히 도우소서’가 그의 기도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본 편은 마틴 루터의 주석에서 매우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70편을 건너뛰거나 짧게 주석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시편 70편을 길게 주석하면서 다윗의 이 기도는 공포와 억측과 냉담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는 방패요, 장이요, 천둥 벼락과 같아 파괴적이라고 했습니다.

② 그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소서(2-3절) : 원수를 위하여

다윗은 원수의 악한 계획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고 혼란에 빠져 뒤로 물러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 우리 기도는 이리해야 합니다. 잘못 행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그들이 어리석어 좌절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4절) : 의인을 위하여

자신의 상황이 위급해 졌을 때 시인은 의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인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할 때 다른 의인들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엘리야가 토렘나무 아래서 좌절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남은 자가 있음을 회상케 하셨습니다(왕상 19:18).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병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구원받아야 할 의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라고 항상 말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시인의 확신

“주는 나의 도우시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5절).

위 말씀은 시인의 기본 신앙 또는 확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의 도움이 올지, 아니면 나중에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높이는 하나님이 도울 의지가 있으신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서양 격언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부자였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라는 다윗의 기도는 지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오랫동안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오래 기다리며 현재 도움을 주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궁극적 구원을 주실 주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7 성경암송대회

범위: 디모데 후서

10월21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 10월26일(금) 본선 - 602호

2007 성경암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성경암송대회는 디모데 후서를 본문으로 성도들이 선의 경쟁을 하게 된다.

이미 교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성경을 암송하며 이번 대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1일 주일에는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치른다. 여기에서 선발된 이들이 26일(금) 602호에

모여 본선을 갖는다.

본선 채점기준은 암송범위 및 정확도 70%, 태도 20%, 반응 10%이다. 본선에서 입상한 이들은 10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을 하며 암송도 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은혜로운 성경암송대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친구·학부모 초청 - 작은 순례자의 합창

Miracle Generation

10월27일(토) 오후 5시 - 웨스트민스터 홀

교육1국(국장 서문석 장로)에서 친구·학부모 초청, 작은 순례자의 합창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명자 대회 기간 동안 교육1국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부모님을 교회에 초청하여 전도하는 잔치이다.

이번 행사는 찬양과 율동, 영어연극과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매직 전도시범을 보여 전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또한 기악합주와 객석과 함께 하

는 순서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순서로 다양하게 준비된다.

또한 교육1국에서는 이번 행사를 귀중한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초청권과 전도지를 준비하여 전도에 힘쓰고 있으며 초등부와 유년부에서는 학생들의 미술 작품전도 개최하여 1층 로비와 복도에 전시하기로 하였다. 많은 어린이와 부모님이 초청을 받아 주 안에서 하나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Jay Kronish 선교사 - 이스라엘 선교 위해 파송기로



우리교회는 지난해 이스라엘로 파송한 이항명 선교사와 함께 예루살렘 순례자의 집 교회를 설립한 Jay Kronish 선교사를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파송기로 하였

다. Jay Kronish 선교사는 1946년 9월10일 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부인과 슬하에 1남이 있다. 부인은 2006년 장신대를 졸업하고(B.D) 내년 3월에 목사안수를 받을 예정이다.

10월 1차 성경 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7독> (12교구)김경철 장로 <6독> (8교구)김인식 권사
- <4독> (2교구)최복순 성도 (9교구)송옥혜 권사
- <2독> (4교구)김복녀 권사 (5교구)이윤영 권사 (8교구)임윤자 권사 (9교구)조명녀 권사 (11교구)정애신 성도 (12교구)김광신 장로 (13교구)성봉선 성도
- <1독> (1교구)김광통 집사 김명숙 권사 박신자 집사 이정임 권사 장호림 집사 정복순 권사 정태룡 장로 (2교구)조향영 집사 한충현 집사 (3교구)강영자 집사 손병석 집사 이재봉 권사 이해순 권사 조귀자 권사 최금숙 집사 최세정 집사 (4교구)구정두 집사 김상태 집사 김숙자 집사 박민숙 집사 유기찬 집사 윤복순 집사 (5교구)김수옥 집사 김정희 권사 우선자 권사 (6교구)노송성 장로 양지훈 집사 양현진 성도 오은이 집사 이원희 권사 임귀순 권사 최성희 집사 최일춘 권사 (7교구)강신태 집사 구귀순 집사 김복순 권사 김종리 권사 김태기 장로 (8교구)김영일 집사 박정옥 권사 이영자 권사 임윤자 권사 (9교구)이남성 집사 이부자 권사 (10교구)김규성 집사 김재근 집사 이기숙 집사 정경자 권사 (11교구)박정선 장로 박천희 권사 이경희 권사 전배호 권사 천기성 집사 최금자 권사 최은실 성도 (12교구)송성식 집사 양숙란 권사 이수자 권사 전원순 권사

(13교구)곽수환 성도 권오영 성도 김미경 성도 김용복 성도 김자경 집사 김정미 집사 김정에 집사 김혜란 집사 박경애 집사 박춘자 권사 박형숙 집사 배현돈 집사 손성실 집사 유진숙 성도 이금순 집사 최은석 집사 함연호 권사 (14교구)김예순 집사 박진희 집사 이명순 집사 (대학부)고광재 김다희 김진희 김필구 안지훈 우영찬 이우리 장정남 홍정환 (청년부)신혜영 (유년부)최태욱 (중등부)최혜진

18기 찬양대양성반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8기 찬양대양성반이 7주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수료한다. 우리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한편 19기 찬양대양성반은 다음 주일 오후 1시30분 601호실에서 7주간의 과정으로 개설된다.

<18기 수료자 명단>

서수녀 이지현 전은주 차인화 조순덕 김미연 임미애 유승근 방호철 강석조 구정희 정은봉 정은순 김기진 홍현숙 채명숙 박경민 최영경 배은경 류운형 최강혁 이혜경 한계환 고인창 이상 24명

시명자의 기도 - 선교의 시명자들

캄보디아 어린이를 위하여!

박진아 선교사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사랑의 빛을 갹을 수 있는 선교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로, 행복한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또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를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지난날 잔혹한 학살과 전쟁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킬링 필드가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로 충만한 리빙 필드가 되게 하여주소서. 오랫동안 우상숭배와 살인과 폭력과 거짓에 속박되었던 모든 고통과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소서.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잔인한 학대와 가난과 죄악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주소소서. 그리하여 장차 캄보디아의 장래에 소망과 비전이 넘치게 하여주소서. 어린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를 갈망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캄보디아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심장이 설레실 때 우리의 심장이 함께 설레게 하소서. 캄보디아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심장이 아픔을 느끼실 때 우리의 심장도 함께 아파하게 하소서. 캄보디아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심장이 기쁨으로 뛰실 때 우리의 심장도 함께 기쁨으로 뛰게 하소서. 캄보디아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심장이 힘차게 고통치실 때 우리의 심장도 힘차게 고통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를 갈망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 모두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소서.

카자흐스탄 선교사 승합차(봉고)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김은준 선교사의 사역을 위한 승합차(봉고)1대가 필요하다. 헌신자를 찾고 있다.

천국시민양성 - 어린이 수요일예배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이!

정미연 집사(14교구)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린이들이 수요일 오후 5시 603호로 모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요일예배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달려오는 우리 아이들 (영아부~초등학교 6학년).

어린 아이부터 언니, 오빠 까지 하나가 되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가슴 가득 채웁니다.

지리, 역사, 성경 등 모든 부분에 신나게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해지는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납니다.



연령별로 분반공부를 마친 후에는 매주 색다르고 재미있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유명화가 김유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마음으로 담은 시간, 천상의 소리 동화 구연가 안성희 집사님의 동화를 들으며 예쁜 마음을 담은 시간, 척척박사가 되는 성경퀴즈 시간, 신나는 운동회 등. 지난 추석 때에는 모두 둘러앉아 맛있는 송편도 빚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5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린 이 예배는 우리 아이들이 장차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에 남아 있어 이 시간

을 기억하고 지킬 것입니다.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김소진 성도 (12교구)

나는 당신의 마음을 늘 지니고 살고 싶습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진리의 기쁨을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아무 것도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당신의 숭고하신 마음을,

굵은 베로 옷을 삼아 재에 앉았거나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으로 떨고 있는 자에게 다정한 미소로 주위를 감싸며 따스한 손길이 되어주고

죽음과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고통과 은총의 표징을 바라며 처절하도록 울부짖고 있는 자에게는 아침의 빛으로 등불을 밝혀 구원의 빛줄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혼자일 때 곁으로 다가와 천상의 노래로 속삭이며 불어오는 바람을 막으려고 울타리 되어주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그 무엇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당신의 의지에 묶여지길 원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한 번도 내려놓을 수 없도록 나는 당신의 그 지고하신 마음을 꼭 붙들고 싶습니다.

천국시민 양성 - 사랑부 야외예배

사랑부, 은혜의 통로

김상준 (사랑부 교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채워 주시지만 이날 야외예배에 대한 특별한 예비하심은 우리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사랑부는 한티 공원에서 야외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날 사랑부친구들은 청팀, 백팀으로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특별한 제기차기 놀이도 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밝고 밝은 사랑부 친구들을 보면서 비록 몸은 불편하고 모습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들은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제겐 너무나도 자랑스런 커다란 축복입니다.

야외 활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즐거움, 바로 식사 시간이었습니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찰밥과 맛있는 반찬들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야외에서 먹는 찰밥은 말 그대로 '꿀밥' 이었고, 또 반찬들은 왜 그렇게도 맛있는 건지 사랑부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상품으로 준비된 사랑과 과자, 초콜릿 또 손 장갑

모양의 마우스 패드까지 푸짐해진 두 손들을 보면서 사랑부 친구들은 행복해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들에게서 저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감동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기쁨의 잔치가 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부의 핸드벨팀이 오늘 주일 예배의 현금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주일 예배 때도 사랑부 핸드벨 팀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질 그날을 꿈꿉니다.

항상 사랑부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상품으로 준비된 사랑과 과자, 초콜릿 또 손 장갑

순례자 캠페인
< 사랑의 "먼저" 운동 >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실 때!
"먼저"운동 실천으로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나눕시다

1. 노약자와 장애우 그리고 새가족을 "먼저"
2. 인사는 내가 "먼저"
3. 실천은 중직자가 "먼저"
4. 계단은 젊은이가 "먼저"

WOGA 2007 미전도 종족 세계 여성 선교대회

10월15일(월) - 19일(금) 햇불선교센터



평양대부흥운동 백주년을 맞는 뜻 깊은 2007년에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세계여성리더선교대회(WOGA KOREA)가 열린다.

본 대회는 10월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열리며 특히 18일(목)은 '세계여성리더선교 연합대회'로 오후 6시에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세계여성리더선교대회는 해외참가자 1000여 명과 국내 참가자 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로, 이번 대회에 우리교회 여전도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12만원으로 (중식, 석식, 교재대 포함) 교회는 미전도 지역 선교협력 차원에서 1/2을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각 전도회 회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2007 중등부 홈커밍 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소연(중등부 회장)

우리 중등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회복되어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며 함께 세워 가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중등부"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0일(토) '2007 중등부 홈커밍 데이'를 갖습니다.

'2007 중등부 홈커밍 데이'는 중등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즐겁고 신나는 축제의 장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심어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누리도록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에 중등부의 많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을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비전을 꿈꾸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행사가 되도록 여러 학부모님들과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는 현재 미국 LA여성선교회 창단 지휘자 소프라노 이귀임 선생과 우리교회 할렘루아찬양대 지휘자 고성진 집사의 찬양으로 드러진다. 이귀임 선생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김자경 오페라단의 주역으로 활약한 1970년 당대의 소프라노였으며 미국 이민 후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교포사회에 전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은혜" (신상우 곡) 외에 2 곡으로 찬양 드린다.

동정

■ 이준윤 목사는 16일(화) 종교개혁 49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 교신대 채플 설교를 한다. 17일(수) 706 특공연대 새생명교회 진중세례식을 집례한다.

■ 이사: 김국영 정현실 성도 가정/ 서초구 방배동 970-30 미도빌 201호(019-242-0227)

한용삼 김선영 성도 가정/ 일산구 일산동 동문5차@ 502-502(010-9120-7675)

하영수 장로(1교구) 대치4동 934-19 101호 T.539-3722

■ 개인전: 김혜자 권사(12교구) '아.름.다.운.시.간.들' 10.18(목)~24(수) 아트센터 순수(수지 성북동 데이파크내 2층)

이준석 성도 개인전 - 종로구 관훈동 188 인사아트센터 지하1층

■ 개업: 14교구 전장복 집사/ 아카데미(구건물 리모델링) 강남구 일원동 564-0011

■ 발령: 13교구 임병석 성도/ 외환은행 분당 중앙 WM 센터 지점장 031-786-1721

■ 주간식당 봉사: 안드레선교회(10.14) 베드로선교회(10.21)

■ 금주의 식사: 오교식 집사 김은순 집사 가정
장덕 집사 임인자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2007 가을 시즌 제8회 화요정오 음악회 Chamber Music Concerts with Organ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이번 주간 화요정오음악회는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로 준비된다.

첼로를 연주할 김윤영 선생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Peabody Conservatory of Music 석사(Master of Music) 및 전문연주자 과정(Graduate Performance Diploma)을 취득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음악박사 학위(Doctor of Musical Arts)를 취득하였다.

국내외 다수의 독주회와 앙상블 연주, 서울스트링앙상블, 이화첼버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현재 이화여대, 울산대, 대전대, 계원예고 출강 및 서울스트링앙상블, 이화첼버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 중이다.

오르간을 연주할 김인화 선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종교음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오르간연주전공 음악 석사과정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교회음악석사과정 우등졸업(Cum Laude),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오르간과 교회음악전공 박사과정 졸업, 미국 American Guild of Organist 주관 National Young Artist Competition of Performance에서 7명의 finalist 중 하나로 선정, 미국 National Organ Competition (First Presbyterian Church, Fort Wayne, Indiana에서 개최)에서 finalist로 선정, 미국 Wm. C. Hall Organ Competition에서 Best Hymn Playing 수상 Roy and Sue Johnson Award in Organ or Sacred Music 수상하였다. 현재 사랑의교회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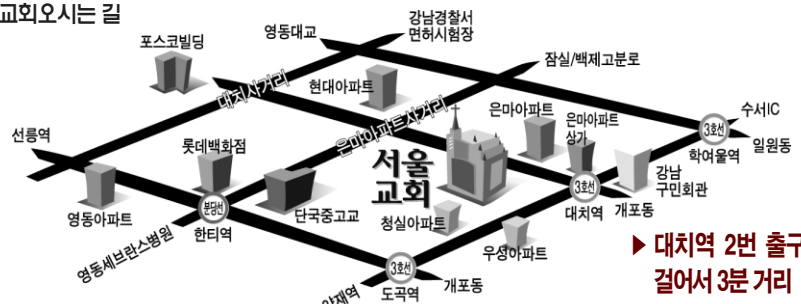
16일 화요정오음악회에서는 J. S. Bach의 곡 이외 다수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7 사명자대회(10월7일-11월25일)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